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함

예수님의 공생활을 관상하기 위해 이냐시오는 “활동 중에 있는 사람”을 묘사한 성경 구절을 선택하려 한 듯하다.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되신 예수님은 사명을 수행하고 계신다. 영신수련의 「왕의 부르심」 관상에서부터 시작하여 제2주간과 제3주간 그리고 제4주간에 제시된 관상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가난하신 예수님은 또한 파견된 분이시기도 하다. 사실, 예수님의 가난과 겸손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파견하시며 맡기신 그 일을 완전한 순명으로 이루어 내셨다는 데에서 드러난다. 세상을 구속하는 데에는 너무도 많은 일이 따른다. 하느님은 활동적이고, 언제나 현존하시며, 함께 행동하자고 우리를 촉구하시며, 올바른 나아갈 길을 제시하시고 초대하시는 참으로 바쁜 하느님이시다. 이냐시오 영성이 초점을 맞추는 커다란 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사명이다.

「왕의 부르심」 관상으로 돌아가 우리가 첫 장에서 간략히 살펴 보았던 “일을 바라보는 비전”을 되짚어 보자. 이냐시오는 인류를 괴롭히는 모든 악을 정복하고자 하는 뜻을 선포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상상해 보라고 한다. 그 지도자는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

를 원한다. “그 누가 이런 고귀한 도전에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겠는가?”라고 이냐시오는 묻는다. 이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예수님 이시다.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선을 도구로 하여 악을 정복하는 당신의 사명에 모든 사람이 동참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만, 이냐시오는 우리 각자가 이 부르심을 개별적으로 받아들이기 원한다.

예수님이 이 부르심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다는 것에 주목하자. 예수님을 처음 따른 사람들은 지도자를 찾아 들쭉이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어부, 기능공,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던 중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고자 하는 한 지도자에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서 당신의 사명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다.

이 부르심은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다가온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그리 옳은 표현이 아니다. 그분은 자신의 온 존재를 던져 우리를 부르신다. 그분의 목소리는 강하며 그분의 눈은 빛난다.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당기신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하자고 우리에게 “손짓하며 부르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분이 손짓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는 어떠한 강제적인 요소가 없다. 하느님은 손짓하며 우리를 부르시고는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신다. 하느님께 응답하느냐 아

니냐는 언제나 우리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

「왕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자는 부르심이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와 함께 이 사명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기꺼이 나와 함께 일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이냐시오는 코미고 *comigo**라는 스페인어를 사용한다. 이는 “나와 함께”라는 친밀한 뜻을 지닌 말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곁에서 일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일할 수 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 곁에서 일해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의 일이 결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함께 일한다”는 말에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한 다른 이들과도 함께 일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 팀워크 즉 다른 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할 때 우리는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왕의 부르심」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응답을 요구한다. 단순히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냐시오는 자신의 말로 이 “마땅한” 응답이 어떤 것인지 말한다. “승리가 보장된 일에 하느님께서 초대하시는데 올바른 정신을 지닌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 드리지 않으며 그분의 부르심에 수고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당연히 그 일을 하려 할 것이다. 그

* 편집자 주: 이냐시오가 살던 당시에는 현대의 스페인어 폰미고 *conmigo* 대신에 포미고 *comigo*를 사용했다.

일을 하기에 마땅한 이유가 있다. 이치에 맞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냐시오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큰마음을 지니고 열정으로 불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여하시는 사명에 온 마음을 다하여 자신을 내어던질 것이다. 이들은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는 모든 오해와 모든 배척과 모든 실제적, 영적 가난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진심으로 당신과 함께 있기를 열망합니다. 이로써 당신께 더 큰 봉사와 찬미가 된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신중히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응답을 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 대부분에게 그것은 목표이다. 언젠가 이러한 열정으로 하느님께 관대하게 자신을 봉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왕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 삶 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지금은 또 어떠한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관계를 이루어 나가기 원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는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과 꿈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우리의 포부 어디에 그분이 자리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목표를 세우는데 그분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시는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친구와 가족 간의 교류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에 봉사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복음 전파자가 되고 싶어 하는

가? 어쩌면 우리는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그 부자 청년과 같을지도 모른다.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부를 포기하라고 요청하셨다. 적어도 이 청년에게 도전으로 다가온 것은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도 그럴지 모른다.

이나시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도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이 은유가 귀에 거슬릴 것이다. 다른 사람의 수중에 놓인 도구가 된다는 것에 반발할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고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야말로 영예로운 영적 선물이다. 이나시오는 언제나 자신을 써 달라고 하느님께 간구했다. 그는 하느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참으로 굉장한 특전이라고 생각했으며, 이는 실제로도 그렇다. 하느님은 아주 현실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 우리가 기꺼이 하느님의 도구가 될 때 하느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활동하실 수 있다. 도구가 된다는 것은 마치도 낮은 지위의 역할을 맡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하느님의 동반자 관계라는 지위로 우리를 격상시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명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다.